

부실학술활동 예방 캠페인

'부실의심학술지'란 출판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학술지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엄격한 동료심사 없이 유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둘째 저명한 과학자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한다.

셋째 사기성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등을 활용한다.

넷째 학술지 타이틀이 정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하다.

다섯째 해당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발송한다.

'부실의심학술지' 점검 방법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AFE)을 통한 학술지의 사전 점검
<<https://safe.koar.kr>>



'Think-Check-Submit' 을 통한 약탈적 학술지 점검
<<https://thinkchecksubmit.org>>



- Think : 연구결과를 믿을 만한 저널에 투고하려고 하나요?
- Check : 투고하기로 선택한 저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Submit : 향후 경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면 투고하십시오